

고려대 소장본 《續眞文忠公文章正宗》 문헌에 관한 一考察*

車榮益**

<목 차>

1. 서론
2. 편찬경위
 - 2.1 編撰者
 - 2.2 書誌考察과 板本事項
 - 2.3 編纂過程
3. 體制와 文獻價値
 - 3.1 體制와 內容
 - 3.2 文獻價値
4. 결론

1. 서론

본 논문에서는 고려대 한적실에 소장되어 있는 《續眞文忠公文章正宗》의 판본사항, 내용, 체제, 가치를 살펴보고 아울러 조선전기 시문선집 간행에 있어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고려대본 《續眞文忠公文章正宗》은 중국 明代 鄭柏이 편찬한 중국역대 문인의 시문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전기 이 책을 수입하여 明宗11년(1556년) 甲辰字로 간행하였다. 조선전기 수많은 중국문인의 개인 詩集이나 文集, 중국역대 詩文選集이 간행되는 시대환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 금강대학교 강사

경 속에서 鄭柏의 《續眞文忠公文章正宗》은 널리 읽히지는 않았지만¹⁾, 조선 개국 이후 唐宋대 중심의 시문선집의 편집경향과 달리 元明대 문인의 작품을 다룬다는 문장선별관이나 새로운 편선택례 기준은 중요한 문학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元明대 시문선집인 《續眞文忠公文章正宗》은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지 못해 중국에서도 남아있는 판본이 드물고 우리나라에서도 1556년 甲辰字로 간행되긴 했지만²⁾ 거의 유실되고 고려대학교 한적실에 완질본 형태로 40권 10책이 남아있으니 그 문헌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2. 편찬 경위

2.1 編纂者

《續眞文忠公文章正宗敘》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의 편자는 浦陽(현 浙江省 浦陽縣)의 鄭柏이다. 정백에 관한 기록은 많지가 않다. 《明史》에는 그에 관한 전기가 없고 《金華賢達傳》³⁾에 남아있는 그의 傳記나, 方志를 비롯한 주변자료를 통해서만 그의 일생을 고찰할 수 있다. 그의 형 정해(鄭楷)의 활동

-
- 1) 1556년 명종 11년 이전까지의 간행사항을 고전번역원에서 조회해본 결과 鄭柏의 《續眞文忠公文章正宗》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간행한 사항은 없다. 다만, 조선왕조실록 세종 10년(1428년) 11월 기사에는 眞德秀의 《文章正宗》의 간행을 명하는 기사와, 문종 1년(1451년) 7월 기사에는 진덕수의 《續文章正宗》을 북경 가는 사신에게 사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며 《國朝寶鑑》 17권 성종 3년(1490년) 2월 기사에는 眞德秀의 《文章正宗》을 민간에서 찾아 올리라는 내용이 나온다.
 - 2)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잔질본 1책이 남아있는데 홈페이지 검색사항에는 1485년 성종 16년에 甲辰字로 간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천혜봉의 《한국의 고찰자》(1971, 寶晉齋), 金斗鍾의 《金華賢達傳》(1974년, 탐구당), 《(조선전기) 한국의 금속활자 : 2008 조선왕실 주조 금속활자 복원사업 결과보고서》(청주고인쇄박물관, 2009년) 등의 자료에서 1485년 《續眞文忠公文章正宗》을 간행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1485년 간행사항은 기록하지 않는다.
 - 3) 《欽定四庫全書總目》 卷61 傳記類存目에는 《金華賢達傳》중 정백의 전기는 그의 자손들이 지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기가 明代(1368~1644년) 成祖 永樂末(1424년) 전후이므로 15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백이 지었다고 하는 《金華賢達傳》(총 12卷)에 남아있는 鄭柏에 관한 전기가 가장 자세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의 학문적 경향이나 문장에 대한 생각을 유추할 수 있다. 정백의 字는 叔端이고 金華府 浦江縣 사람이다. 원래 鄭氏가문은 남송으로부터 명대에 걸쳐 浙江省 浦陽縣에 대가족으로 모여 살면서 유가윤리의 모범이 되어 '義門'이라는 호칭을 얻기도 한 명문가에 속한다. 정백의 부친은 鄭洧이고 형이 두 명 있었는데 鄭棠과 鄭楷이다. 삼형제는 모두 《金華賢達傳》 11권의 儒學條 전기(傳記)에 소개되어 있는데, 송렴(宋濂)⁴⁾으로부터 학문을 배웠다고 한다.

우선 《金華賢達傳》 11권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백의 자는 숙단이며, 힘써 배우고 경학을 즐겼다. 주장사(朱廉)에게 배움을 얻었는데 주희의 학문을 듣고 性과 理의 뜻을 탐구하였다. 얼마 후 송태사(宋濂)에게 문장을 배웠는데 태사가 그에게 문장 짓는 것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육경을 근본으로 삼아 이치를 밝혀서 기를 채웠으며 맹자·한유·구양수를 중주로 삼았다. 문장은 반드시 책을 그대로 옮겨 적어서 쓰고자 하는 바에 응하였다. 송태사가 잘못을 저질러 촉 땅에 갔을 때, 지은 문장을 모아 정백에게 주며 그에게 斯文을 맡긴다는 부탁을 하였다. 이어서 아버지 정의를 형을 대신하여 난을 당해 죽고, 자신은 극도로 슬퍼하고 근심하여 관직에 나아갈 뜻이 없었다. 사대부 벗들이 매번 추천하려고 하였으나 병으로 사양하였다. 오직 자나 깨나 경전에 몰두하여 골똥히 생각하며 참된 지식과 실천으로 자신에게 행했으며 효자우제의 덕으로 堂兄弟들을 이끌고, 약을 잘 지어 사람들에게 베풀었다. 나이 들었어도 게을리 하지 않고 또 《구급양방》을 인쇄하여 베풀고 멀리까지 전하였다. 이름이 촉왕부에 전해져 그의 형 장사 숙도에게 요청토록 한 적이 있는데 병을 핑계 삼아 거절하였다. 군주가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숙단은 청일지사라고 할 만 하다.”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그로 인해 청일처사라고 일컬었다. 만년의 저서에 《성조문찬》, 《문장정원》, 《숙문장정종》, 《금화현달전》, 《진덕재고》가 있다. 아들인 정념의 재주와 학

4) 송렴(宋濂, 1310~1381년)은 고계(高啓), 유기(劉基)와 더불어 '明初詩文三大家'로 불린다. 학문적으로는 의리(義理)와 심성론(心性論)을 중시하는 주희의 성리학을 계승하면서도 절학(浙學)의 특징인 경제(經濟)와 용세(用世)도 접목하여 의리와 세용을 겸한다고 할 수 있다

문이 아버지와 어깨를 겨룰 만하다.⁵⁾

위 《金華賢達傳》에 의하면 그는 주렴(朱廉)에게서 주희 성리학의 학문적 방법을 배웠으며, 이후 송렴(宋濂)으로부터는 문장을 배웠는데 육경(六經)과 맹자, 한유, 구양수의 글을 작문의 모범으로 삼아 문장 짓는 법을 배웠다. 또 그는 송렴의 문장과 斯文(유학)의 계승이라는 부탁도 받았다. 이후 그는 벼슬에는 별로 뜻이 없어 저술에만 전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볼 때 정백은 명대 초기 성리학적 학문의 전통을 이었고 송렴의 문장작법을 이어받아 문장을 통해 유가의 문화를 계승하겠다는 강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정백이 《續眞文忠公文章正宗》을 짓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와 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2.2 書誌考察과 板本事項

고려대 한적실에 소장된 《續眞文忠公文章正宗》의 청구기호는 “만송 貴 99A 1”이며, 明宗11년(1556)에 甲辰字로 40卷 10冊으로 간행한 活字本 서책이다. 2函, 四周雙邊, 半郭 22.0 x 15.3 cm, 半葉 12行20字 註雙行 20字, 有界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魚尾上下內向, 大黑口가 나타난다. 인쇄용지로 楮紙가 사용되었으며 책의 좌측 半葉 書耳부분에는 ‘元明’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특히 서문의 첫 행 ‘續眞文忠公文章正宗敍’아래 여백에는 ‘臨淵齋章’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⁶⁾ 서문은 <續眞文忠公文章正宗敍> 한 편이 실려 있다. 서문에는

5) 《金華賢達傳》, 鄭栢, 濟南: 齊魯書社, 1996 “柏字叔端, 力學耽經, 受學於朱長史, 聞考亭之學, 以究性理之旨, 既而學文於宋太史. 太史教之作文, 必以六籍爲本, 明乎理以充其氣, 而以孟韓歐陽爲宗. 凡所爲文, 必令繕書以酬應所求, 及太史以累入蜀, 歛其所著以授栢. 有付子斯文之囑. 繼以父貞義, 代兄死難, 哀毀嬰疾, 無意進取. 縉紳朋舊, 每欲推薦, 輒以疾遜謝. 惟寤寐經傳, 潛心玩索, 以眞知實踐, 行之於己, 而以孝慈友弟勸率羣從, 注善藥以施人. 至老不厭. 又印施救急良方. 傳布遐遠. 或以其名達之蜀府, 賜問其兄長史叔度, 稱其疾以對. 主顧左右曰, 叔端可謂清逸處士稱之. 晚年著書《有聖朝文纂》, 《文章正原》, 《續文章正宗》, 《金華賢達傳》, 《進德齋稿》, 子姑才學有稱.”

편찬자인 정백(鄭柏)이 眞德秀의 편선체례에 따라 편집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⁷⁾ 고려대 소장본의 卷首題는 ‘續眞文忠公文章正宗’(卷次)로서, 各 권 第2葉 이후 版心에는 ‘續文章正宗(卷次)’와 葉數를 나타내는 제명이 보인다. 卷首 第2行과 3行에 각각 ‘後學浦陽 鄭柏 選輯’, ‘後學義烏 王稔 校正’이라고 편집자와 교정자를 명시하고 있다.

고려대본 《續眞文忠公文章正宗》의 특기할 점은 跋文과 刊記 등 우리나라에서 간행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 이 책이 정확하게 언제 간행되었는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고인쇄기술사》⁸⁾에 의하면 明宗 11년(1556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續眞文忠公文章正宗》에 관해서는 《明史》卷99<藝文志>에 “鄭柏續文章正宗四十卷”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清代 黃虞稷(1629~1691)의 《千頃堂書目》에도 “《鄭柏續文章正宗四十卷》”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中國古籍善本書目》에서는 현존하는 판본으로 ①명대 正德10년(1515년) 劉氏日新堂刻本 40卷-北京圖書館所藏 ②明刻本 40卷 - 安徽省圖書館所藏 ③明刻本 40卷 - 安徽省圖書館所藏 세 종류의 판본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明史》卷99<藝文志>와 《千頃堂書目》 및 《中國古籍善本書目》을 종합해 볼 때, 《續眞文忠公文章正宗》은 명대 초기 王稔와 張光啓가 처음으로 간행하고 다시 1515년 간행된 판본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續眞文忠公文章正宗》의 국내 소장본으로는 고려대학교에 1556년 甲辰字本 《續眞文忠公文章正宗》40卷 10책(完帙本) 1질과 殘帙本 1책(22~24卷)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는 甲辰字本(殘帙本) 1책(38~40卷)이 있으며⁹⁾,

6) 臨淵齋는 배삼익(裵三益)의 호이다. 배삼익은 1534년(중종29)에 태어나서 1588년(선조21)에 죽는데, 자는 여우(汝友), 명종(明宗)과 선조(宣祖) 때 주로 활동한다. 퇴계문인으로 유성룡(柳成龍), 김성일(金誠一), 권호문(權好文) 등과 교류하고 문집으로 임연채선생문집(臨淵齋先生文集) 6권 3책이 있다.

7) 부록1 <續眞文忠公文章正宗敍> 참조.

8) 金斗鍾, 1974년, 탐구당, p.180.

9) 고려대 소장 잔질본 1책의 청구기호는 ‘경화당 貴 99’로 되어 있는데, 글자를 대조해 본 결과 명종 11년(1556년)에 찍은 甲辰字本으로 확인 되었고,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의 甲辰字本 《續眞文忠公文章正宗》은 1485년으로 서지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나, 서지

이의 국의 소장된 것으로 일본과 대만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3 편찬 과정

앞에서 밝힌 것처럼 鄭柏은 송림으로부터 ‘사문을 맡긴다는 부탁(付子斯文之囑)’을 받을 정도로 송림의 문인 중에서도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 당시 성리학의 계승자이면서도 明初 ‘詩文三大家’로 불렸던 송림으로부터 정백이 이런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은 鄭柏에게 ‘유가 문화’(斯文)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續眞文忠公文章正宗》의 간행은 절실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鄭柏은 서문에서 《續眞文忠公文章正宗》의 간행경위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내가 편집하여 책을 만든 후 고문에 뜻이 있는 오상 왕도(王稔)가 교정을 청하여 동양의 숙소로 가져가니, 마침 병과급사중 동양 오숙림과 복건 도감찰어사 강서 윤승고가 어명을 받들어 건녕을 순시하고 있었다. 두 공의 문장과 정사는 환하게 이름이 나 있던 터라 왕도가 이 글을 보여주니 훑어보고는 기뻐하였다. 건녕으로 가져가 본군 태수 동양 서벽, 건양윤 오강 장광계와 의논하여 돈을 내어 간행해서 배우는 사람을 이롭게 하기를 원했다. 아! 문장은 천하의 공적인 도구이니 탁월한 식견과 의로운 일을 보면 반드시 행하는 사가 아니면 어찌 세상에 행하여 멀리 전하게 하겠는가? 하물며 지금 조정의 다스림은 밝게 드러나고 학교는 흥성하는 때 이겠는가! 여러 공들이 사문(斯文)을 임무로 여겨 이 책을 드러내어 세상에 행하게 한다면 교화를 돕는 것이 진실로 작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포양 정백 삼가 쓰다.¹⁰⁾

학 관련 참고서적에는 1485년 간행된 기록이 없어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사항을 따른다. 또 李仁英의 《淸芬室書目》에 나와 있는 책판상황은 고대본이나 국립중앙도서관본과 약간의 차이를 보여 또 다른 간질본으로 보이나 책이 남아있지 않아 참고사항으로만 기재한다. (續眞文忠公文章正宗 殘本 四卷 二冊, 明宗朝甲辰字印本, 體式與前揭本全同. 卷二、三首題續眞文忠公文章正宗卷之幾, 次行後學浦陽鄭柏選輯, 次行後學義烏王稔校正, 錄議論. 卷五、六首題眞文忠公續眞文章正宗卷第幾, 不署編輯校正人名氏, 錄敘事、元老大臣事迹.)

10) 栢既編輯成書, 烏傷王君叔豐, 志於古文, 請加校正, 持至東陽寓館, 適兵科給事中東陽吳公叔霖、福建道監察御史江西尹公崇奉旨按臨建寧, 二公文章政事, 燁然著稱, 叔豐以是書相示,

이 글에서 정백은 처음에 고문에 뜻이 있는 왕도(1383~1441)에게 교정을 부탁한 일과 우연히 오숙림과 윤승고를 만나게 된 일, 이들이 서벽이나 장광계와 의논하고 출판자금을 모금하여 책을 간행하게 된 경위를 적고 있다. 여기서 《續眞文忠公文章正宗》의 간행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하나 발견할 수 있으니, 바로 오숙림(吳叔霖)과 윤승고(尹崇高)가 어명으로 건녕지방의 순시를 맡은 일이다. 명대 王直의 《抑菴文後集》 卷22의 <送吳給事中詩序>에 의하면 吳叔霖이 建寧(지금의 福建省)지역을 순시했던 것¹¹⁾은 宣德3년(1427년) 무렵이므로 정백의 《續眞文忠公文章正宗》이 간행된 것은 1427년 이후의 일로 추정된다.

3. 體制와 文獻價値

3.1 體制와 內容

고려대본 《續眞文忠公文章正宗》은 총 40권 10책으로 되어 있고, 辭命, 議論, 敍事, 詩賦 네 가지 편선체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각 문체별 편수는 詩 152수, 賦 10편, 敍事 138편, 議論 172편, 辭命 25편으로 총 498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10명의 元대와 明대 문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백의 《續眞文忠公文章正宗》의 편선체례는 眞德秀의 《文章正宗》과 동일하게 ‘辭命’, ‘議論’, ‘敍事’, ‘詩賦’ 네 가지 항목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이 두 서적의 비교를 통하여 계승된 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覽而喜悅。求至建寧，與本郡太守東陽徐侯公璧、建陽尹玆江張公光啓協謀，捐俸刊印以利學者。嗚呼文章，天下公器，非有卓然偉識見義必爲之士，惡能使之行世傳遠。矧今聖朝治化文明，學校興舉。諸公能以斯文爲任，表章是書而行世，則其資化翊教，誠非小補云。浦陽鄭柏謹敘。

11) 宣德二年十二月，天子念軍政之不修，勅選監察御史給事中之有才行者，分行天下察治之。於是兵科給事中吳叔霖與子鄉友監察御史尹崇高當之。

도표1 眞德秀의 《文章正宗》과 鄭柏의 《續眞忠公文章正宗》 비교

	文章正宗	續眞文忠公文章正宗
총편수	1185	498
辭命	173(14.5%)	25(5%)
議論	372(31.4%)	172(34.5%)
敘事	126(10.6%)	139(27.9%)
詩賦	494(41.6%)	162(32.5%)

도표2 鄭柏의 《續眞忠公文章正宗》의 구성체제

구분	분류	편수	구분	분류	편수
권 1 辭命	詔,冊文,制,誥,勅	25	권 21 敘事	記, 志	11
권 2 議論	說, 論, 辯	5	권 22 敘事	記	9
권 3 議論	議, 書	3	권 23 敘事	序	14
권 4 議論	旨, 告, 原	3	권 24 敘事	序, 書	14
권 5 議論	書, 說, 論	5	권 25 敘事	碑	8
권 6 議論	論	5	권 26 敘事	碑	6
권 7 議論	議, 論, 原	6	권 27 敘事	碑	3
권 8 議論	論	4	권 28 敘事	碑	2
권 9 議論	記	11	권 29 敘事	碑	3
권 10 議論	記	14	권 30 敘事	碑	6
권 11 議論	記	14	권 31 敘事	表, 銘	6
권 12 議論	記	13	권 32 敘事	表	8
권 13 議論	記	10	권 33 敘事	表, 銘	4
권 14 議論	記	8	권 34 敘事	銘	9
권 15 議論	序	12	권 35 敘事	碣, 銘	9
권 16 議論	序	15	권 36 敘事	銘, 誌, 表, 記	7
권 17 議論	序	16	권 37 敘事	傳	10
권 18 議論	序	12	권 38 賦	辭, 賦	10
권 19 議論	序, 題, 跋	16	권 39 詩	詩	99
권 20 敘事	記	10	권 40 詩	詩	53

정백의 《續眞文忠公文章正宗》의 편선택례는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진덕수의 《文章正宗》의 편선택례, 즉 ‘辭命’, ‘議論’, ‘敘事’, ‘詩賦’ 4분류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여기서 사명(辭命)이란 천자가 제후나 신하 변방 이민족에 대해 알린 내용으로 중국 남송대 금, 원 등 이민족을 배척하는 ‘尊王攘夷’의 측면이 강한 글이다¹²⁾. 이에 비해 ‘의론’이나 ‘서사’는 역대 역사사실에 대한 포럼, 현실 상황에 대해 義理를 밝히거나 실제상황에 맞게 기술하는 것이다.¹³⁾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議論이나 敘사는 세상의 쓰임(世用)에 적절한 작문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시부’는 사람의 性情을 노래한 것이지만 압운과 조탁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위치시키고 있으며, 정백은 서문에서도 밝히듯이 ‘文以載道’의 문학관에 따라 예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기준에 맞는 시와 부만을 선택하고 있다.¹⁴⁾

眞德秀가 ‘辭命’, ‘議論’, ‘敘事’, ‘詩賦’의 네 가지 체례로 시문을 구분한 것은 북송이 이민족에 의해 망하고 수도를 남쪽으로 옮긴 역사적 상황에서 송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의도와 남송 도학가들의 ‘중도경문(重道輕文)’ 문장관은 깊은 연관이 있다¹⁵⁾. 진덕수는 남송의 상황을 ‘明義理, 切世用’의 문학관을 통해 이해하고 풀어나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¹⁶⁾ 그래서 이러한 진덕수의 문학관은 ‘辭命’에서 ‘尊王攘夷’의 형태로 나타나서 《書經》의 문장을 대거 수용한다. 이에 비해 통일된 명나라에서는 변방 이민족을 경계하는 ‘辭命’보다는 ‘切世用’의 측면을 중시하는데 정백의 《續眞文忠公文章正宗》에서는 이 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經世致用’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敘事’류의 문장

12) 《續眞文忠公文章正宗》 서문: “蓋辭命者, 乃天子制詰群臣, 冊命諸侯, 詔敕天下, 宣諭外夷, 皆所以代言者也.”의 내용과 李弘毅의 <《文章正宗》의 成書, 流傳及文化價値> (西南師範大學學報, 1997年 第2期 참조) 참조.

13) 《續眞文忠公文章正宗》 서문: “議論之文, 或諫諍論說, 或發明義理, 或敷析治道, 或褒貶人物, 所以正乎理者也. 敘事之文, 則筆人事之始終, 師旅之征伐, 創制之本末, 交好之情辭 而紀載乎實者也.”

14) 《續眞文忠公文章正宗》 서문: “詩賦則發乎性情, 止乎禮義, 所謂情動乎中而形於言者也.”

15) <從《文章正宗》의編選體例看眞德秀的選學觀>, 漆子揚·馬智全, 《湖南大學學報》, 2008年3月.

16) 《兩宋道學家文學論研究》, 국립대만대학 박사논문, 홍광훈, 1995.

이 진덕수의 《文章正宗》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切世用'의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切世用'의 측면은 吳澂(7편), 宋濂(32편), 虞集(42편), 王禕(27편), 胡翰(18편), 歐陽玄(10편), 陳旅(14편), 黃潛(28편), 危素(9편), 蘇天爵(5편), 蘇伯衡(5편) 등 金華지역 출신의 문인이나 또 금화지역 문인의 성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인들의 작품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다.¹⁷⁾ 결국 이러한 측면은 진덕수의 문학관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원대와 명대를 통해 이어지는 '文以載道'적 문장관을 계승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도학가들의 문장관에 영향을 받은 정백의 《續眞文忠公文章正宗》의 편선택례는 위진시대 양나라 소명태자의 《文選》의 편선택례와 분명한 대조를 보인다. 우선 《文選》이 부(賦)와 시(詩)를 제일 앞에 배치하여 문체별로 편집하고 있는 반면, 정백의 《續眞文忠公文章正宗》은 구체적인 문체분류를 하지 않고 포괄적인 내용분류에 해당하는 '辭命', '議論', '敘事', '詩賦'의 4분류한다는 점, 그리고 '詩賦'의 작품수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역대로 정통문학에 속하던 시부(詩賦)의 작품수를 많이 줄인 점과 제일 뒤에 배치했다는 점, 그리고 사림의 성정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유가적 '溫柔敦厚'의 측면에서 벗어나지 않는 시부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크게 대조를 보인다. 이런 '文以載道'적 문장관은 《續眞文忠公文章正宗》이 간행되는 조선전기의 실제적 독서나 창작경향과는 괴리되는 측면이기도 하다.¹⁸⁾

《續眞文忠公文章正宗》은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덕수의 《文章正宗》을 본받아 편집한 것이므로 《續眞文忠公文章正宗》에 들어가는 문장이 어떤 선택의 기준에 따라 채록되었는지 살펴보려면 진덕수의 《文章正宗》의 선문관과 대조해서 볼 필요가 있다.

17) 금화학파관련 학통의 계승은 <元末·明初_金華學派의 正統觀念>(김양섭, 《중앙사론》 20집) 참조.

18) 黃涓周는 <韓國本中國詩選集의 編纂에 대한 研究>(동아인문학 Vol.3(2003) p.332)에서 조선전기 간행된 중국시문선집인 《元詩體要》, 《瀛奎律髓》, 《聯珠詩格》, 《三體詩》, 《唐宋八家詩選》, 《香山三體法》, 《祖宗詩律》 등이 대부분 당송시에 대한 편향성을 보여주고 작품의 격식과 예술성을 탐색하는데 치중했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정백은 《續眞文忠公文章正宗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송 이후, 원에서 명조까지 문장의 성함은 옛 것과 비교해도 비슷하나 그 뜻을 계승하는 것은 없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고문 짓는 것을 배우고 모범이 되는 글을 보고 그대로 옮겨 쓰며 항상 읽기를 좋아했고, 책을 읽으면 손에서 놓지 않았다. 지금은 비록 늙었지만, 아직도 이것에 부지런히 하여 문충공의 전편 《文章正宗》의 목록에 따라 원과 명 2대의 문장 중에 의리를 밝히면서 세상의 쓰임에 절실하며 정밀하고 순수한 것을 골라 40권을 집록하여 《文章正宗》의 사명·의론·서사·시부의 네 가지 항목을 잇는다. 채록하여 모은 (형식은) 모두 갖추었으나, 스스로 돌아보니 천박한 것이 부끄러워, 감히 문충공의 끝자락을 僭濫되게 이었다고 여길 바가 아니었다. 바라건대 원명 2대의 문장이 고문에 짝하고 빛을 발하여 간책의 사이에서 떨쳐 빛나,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건문을 넓히고 의론에 바탕하여 이치를 다하고 도에 나아가 문장을 지을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종주가 되는 바를 바르게 할 줄 알고 그것을 쓰임에 이르게 하여, 몸을 닦고 집안을 다스릴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세상을 도와 가르침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¹⁹⁾

원과 명 2대의 의리를 밝히면서 세상의 쓰임에 절실하고 정밀하고 순수한 문장(二代之文明於義理切於世用而精純者)을 채록하여 사명(辭命)·의론(議論)·서사(敘事)·시부(詩賦)의 편선차례에 따라 선별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總集을 편찬하는 목적으로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扶世而立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문관은 성리학의 중도경문(重道輕文)의 문학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정백의 《續眞文忠公文章正宗》의 선문관은 진덕수의 《文章正宗》 서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진덕수(眞德秀: 1178~1235년)는 남송후기 魏了翁과 이름을 나란히 한 유명한 도학가로서 주희의 뒤를 잇는 도학의 정통후계자이다.

19) 같은책, 《續眞文忠公文章正宗》서문: “自宋以後由元至聖朝, 文章之盛, 視古與侔, 而未有續之者. 栢自少學爲古文, 喜觀正宗之書, 傳寫習讀, 誦不能釋手, 今雖至老, 猶且眷眷於斯, 乃做文忠前編例目, 采二代之文明於義理切於世用而精純者, 輯錄四十卷, 以續正宗所謂辭命議論敘事詩賦四者之目. 采輯咸具, 顧慚膚淺, 非敢僭繼文忠之末, 庶幾二代之文, 配諸古, 作輝光, 震耀乎簡冊之間, 俾學者益其見聞. 資其議論, 得以窮理而造道爲文, 則知正其所宗, 致之於用, 可以修身, 可以齊家, 可以扶世而立教矣.”

그는 《文章正宗》 綱目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후대의 문사가 변화된 것이 많아 배우는 사람들이 그 원류가 되는 바른 표준을 알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문장을 모아 기록한 것은 많다. 두에나, 지우 같은 여러 문장가들은 종종 가려져서 전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 세상에 행해지는 것은 오직 소명태자의 《문선》이나 요현의 《문수》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지금 그것을 살펴보건대, 두 책에서 집록하고 있는 문장들이 모두 근원과 흐름의 바른 표준을 얻었을까? 사(士)에게 배움이란 그것을 통해 이치를 다하고 쓰임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문이 배움의 한 가지 일이지만 또한 궁리와 치용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지금 집록하고 있는 것은 의리를 밝히고 세상의 쓰임에 절실한 것을 위주로 하였다. 그 책은 옛 것에 근본하고 그 뜻은 경에 가까게 된 다음에야 취했다. 그렇지 않으면 문사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또한 채록하지 않았다.²⁰⁾

이글에서는 '正宗'의 의미와 《文章正宗》을 편찬하게 된 동기 및 選文觀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正宗'의 의미는 문장의 바른 표준이 되는 근원(源)과 그 변천과정(流)이라고 했다. 이런 경향 속에서 문사의 '源'과 '流'가 무엇인지 알고, 그 속에서 '正宗'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급변하는 송대의 문화적 흐름에 적응하려는 의도에서 지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²¹⁾ 정백은 진덕수의 문장관을 그대로 따라 명초기 바른 문장의 제시라는 지향점을 통해 斯文의 계승을 실천하려고 했던 것 같다. 또 그 문장 선택의 기준으로는 '의리(義理)를 밝히고 세상의 쓰임(世用)에 절실한 것'을 그 주된 選文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런 選文기준은 정백의 《續眞文忠公文章正宗》이 진덕수의 선문관을 그대로 계승한 측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진덕수의 《文章正宗》과 《續文章正宗》이 《左傳》과 《國語》로부터 북

20) 眞德秀, 《文章正宗》綱目: "正宗云者, 以後世文辭之多變, 欲學者識其源流之正也. 自昔集錄文章者衆矣. 若杜預, 摯虞諸家往往埋沒弗傳. 今行於世者, 惟梁昭明文選姚鉉文粹而已. 繇今眡之, 二書所錄果皆得源流之正乎? 夫士之於學, 所以窮理而致用也. 文雖學之一事, 要亦不外乎此, 故今所輯, 以明義理切世用爲主, 其體本乎古, 其指近乎經者, 然後取焉, 否則辭雖工, 亦不錄."

21) <<文章正宗>의 成書, 流傳及文化價值>, 李弘毅, 西南師範大學學報, 1997年第2期.

송까지의 시문을 다루었다면, 정백의 《續眞文忠公文章正宗》은 이후 남송부터 원명까지의 문장을 ‘義理’, ‘世用’의 선문기준에 따라 문장을 채록하고 있다. 보통 총집의 경우 개인의 선문기준에 따라 고금을 통틀어 선별하는 것에 반해 정백은 진덕수의 選文觀을 그대로 따라 송대까지의 문장은 그대로 둔다. 즉 ‘古’에 속하는 문장의 선별에 있어 진덕수의 선별기분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今’에 해당하는 문장만 선별한 것을 보아도, 역으로 정백이 진덕수의 선문기준에 얼마나 충실한지 알 수 있다.

3.2 문헌가치

조선전기 文治主義와 右文政策의 실현으로 태종을 비롯하여 세종에서 명종대에 걸쳐 통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분야에서 대규모 편찬사업을 전개한다. 또 이것은 詩, 賦, 頌, 策을 중심으로 하는 文科 과거시험과 함께 시문선집의 수입과 간행을 유행하게 한다. 또 이런 경향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本 중국시선집의 독자적인 간행을 불러오는데 이것은 중국의 개인 시문집이나, 역대 시문선집의 대량 수입과 간행이라는 과도기적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²²⁾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첫째 정백의 《續眞文忠公文章正宗》은 조선시대 문인들이 독특한 시각으로 편찬하는 중국 시문선집의 교량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辭命’, ‘議論’, ‘敘事’, ‘詩賦’ 네 가지 분류법의 영향이다. 중국의 역대 시문선집의 분류는 《文選》이나 문체분류의 전범을 제시했다고 하는 《文心雕龍》의 문체별 분류를 주로 따른다. 물론 조선전기 시문선집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구체적 문체분류보다 더 큰 범주의 내용과 주제 분류라고 할 수 있는 《續眞文忠公文章正宗》의 분류법은 문체분류의 형식미를 제고시키는 방

22) <韓國本中國詩選集의 編纂에 대한 研究>, pp.319~321, 黃渭周, 동아인문학 Vol.3(2003)

향보다는 내용 위주의 분류에 하나의 방향 제시를 해주었다는 측면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원과 명초까지의 문인들의 문장과 시만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조선전기 주로 간행된 시문집이나 시문선집으로는 《文選》, 《文章正宗》(續文章正宗 포함), 《古文眞寶》, 《瀛奎律髓》, 《三體詩》, 《唐詩鼓吹》, 《鼓吹續篇》, 《詩學大成》, 《聯珠詩格》, 《唐百家詩》 등이 있다. 이 중 《文選》을 제외하고 《文章正宗》, 《古文眞寶》는 역대 시문선집이긴 하지만 이 서적들 역시 당송대 시와 문장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선전기 중국시문집의 대부분은 당송대 시문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續眞文忠公文章正宗》은 문장 학습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넓혀 놓아 문장을 짓는데 있어 지평을 넓혀놓았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고려대 한적실에 소장된 정백의 《續眞文忠公文章正宗》에 대해 편찬자, 서지적 고찰, 판본사항, 편찬경위, 체제와 문헌가치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續眞文忠公文章正宗》은 명대 초기 鄭柏이 南宋 眞德秀의 《文章正宗》의 編選體例와 文章觀을 본받아 元과 明 2대 문인들의 문장과 시를 모아 놓은 詩文選集으로 중국과 한국에 총 6질이 남아 있어 귀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고 조선전기 중국시문집의 수입과 간행사항을 폭 넓게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둘째, 《續眞文忠公文章正宗》은 명대 이후로는 거의 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존하는 판본으로 중국에 3질과 우리나라에 3질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完整本 형태를 띠고 있어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조선전기 당

송대 중심의 시문선집 간행이라는 편향성에 비추어 元明代 문인의 문장과 시를 뽑아 놓았다는 측면에서 문학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편선택례에 있어 구체적인 문체별 분류가 아니라, 내용과 주제에 따른 분류법을 따랐다는 것은 조선전기 당시 문장작법이나 문장관에서 '文以載道'적 문장관과 통치관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네 가지 編選體例는 문체별 분류보다 내용이나 주제별 문장편집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 된다.

부록1 <續眞文忠公文章正宗敍>

昔眞文忠公以後世文詞之多變，而患夫學者不能歸之於正，乃采諸家古文義正而辭純者爲文章正宗，謂“士之爲學，所以窮理而致用，文雖學之一事，而不外乎理，故其所輯主乎明義理切世用，其體本乎古其旨近乎經者則取之，否則辭雖工，亦有不錄，而其目有四，曰辭命，曰議論，曰敘事，曰詩賦。蓋辭命者，乃天子制誥群臣，冊命諸侯，詔赦天下，宣諭外夷，皆所以代言者也。議論之文，或諫諍論說，或發明義理，或敷析治道，或褒貶人物，所以正乎理者也。敘事之文，則筆人事之始終，師旅之征伐，創制之本末，交好之情辭而紀載乎實者也。詩賦則發乎性情，止乎禮義，所謂情動乎中而形於言者也。公之前編，謂賦既見乎朱子集註楚辭後語，而不之錄，謂律詩變乎古體，亦所不取其文。自周秦以至於唐，選爲二十四卷。續編則采宋之歐陽諸大家，爲二十卷。惟取夫議論敘事之文，而議論又分而爲二，曰論理，曰論事。至於辭命詩賦，皆不取焉。然自宋以後，由元而至聖朝，文章之盛，視古與侔，而未有續之者。栢自少學爲古文，喜觀正宗之書，傳寫習讀，誦不能釋手，今雖至老，猶且眷眷於斯，乃做文忠前編例目，采二代之文明於義理切於世用而精純者，輯錄四十卷，以續正宗。所謂辭命議論敘事詩賦四者之目，采輯咸具，顧慚膚淺，非敢僭繼文忠之末，庶幾二代之文，配諸古，作輝光，震耀乎簡冊之間，俾學者益其見聞。資其議論，得以窮理而造道爲文，則知正其所宗，致之於用，可以修身，可以齊家，可以扶世而立教矣。聖賢之道，庸有外於是乎？故夫文者載道之具，先聖後聖，其歸一揆。苟能讀其文以究其旨，探其奧而求聖賢之心，其進於道，未可量已。栢既編輯成

書，烏傷王君叔豐，志於古文，請加校正，持之。東陽寓館，適兵科給事中東陽吳公叔霖、福建道監察御史江西尹公崇高奉旨按臨建寧。二公文章政事，燁然著稱，叔豐以是書相示，覽而喜悅，求至建寧，與本郡太守東陽徐侯公璧，建陽尹盱江張公光啓，協謀捐俸，刊印以利學者，嗚呼文章，天下公器，非有卓然偉識見義必爲之士，惡能使之行世傳遠，矧今聖朝治化，文明學校，興舉諸公，能以斯文爲任，表章是書而行世，則其資化翊教誠非小補云。浦陽鄭柏謹敘。

<參考文獻>

- 孫寶基 著，《한국의 고활자》，서울: 普晉齋, 1971.
金斗鍾 著，《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探求堂, 1974.
商傳 著，《明代文化史》，上海：東方出版中心, 2007.
中國明代研究學會 著，《明人文集與明代研究》，臺北市: 中國明代研究學會, 2001.
홍광훈 著，《兩宋道學家文學論研究》박사논문, 國立臺灣大學, 1995.
鄭栢 著，《金華賢達傳》，濟南：齊魯書社, 1996.
김양섭, <元末·明初_金華學派의 正統觀念>, 《중앙사론》 20집, 2004.
李弘毅, <《文章正宗》의 成書, 流傳及文化價值>, 西南師範大學學報, 1997年第2期.
黃渭周, <韓國本中國詩選集의 編纂에 대한 研究>, 동아인문학 Vol.3, 2003.

<中文提要>

高麗大學校圖書館所藏本《續眞文忠公文章正宗》是在朝鮮明宗11年(1556)刊行的詩文選集。原來《文章正宗》是南宋時代眞德修編輯過，到了明朝，鄭栢是效法《文章正宗》的體式編輯元明代文人詩文的，這就是《續眞文忠公文章正宗》。本論文考察高麗大學校圖書館所藏本《續眞文忠公文章正宗》的意味和價值。

關鍵詞: 鄭柏, 《續眞文忠公文章正宗》, 眞德秀, 金華, 眞德修, 文以載道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0.12.27	2011.2.10	2011.2.13	2011.2.15	2011.2.28